

미래의 의학

미 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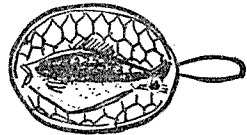
의 학

3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가



암은 정말 고칠 수
있게 될까

■ 閔 珖 植



30년 후에는 과연 암은 고칠 수 있
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대답은 「No」라

특집

고 나는 대답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여러번 어떤 병은 완전해결하였다고 세계적으로 떠들어대고 「노벨」상도 받은분이 얼마나 많은가?

예를들면 속칭 606호를 1912년 「에트리히」가 발견했을 때는 매독은 완전해결했다고 생각했으며 1928년 런던 St. Many's Hospital의 「프래밍」씨가 「페니실린」을 발견 1941년 임상실험을 거쳐 2차대전에서 「옥스퍼드 팀」이 전상(戰傷)환자에 사용하여 성과를 올리고 「플레밍」씨는 노벨상을 받았을 때는 구균(球菌)으로 된 감염병은 완전 해결 되었다고 생각했으며 「왁스만」의 「스트렙토마이신」을 발견했을 때도 결핵병은 완전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그런 병이 완전해결되었는가 질문한다면 나는 역시 「No」이다. 각 세균은 각기 자기가 살아야 할 여러가지 방어작용을 발휘하여 그러한 약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 대항할 방법을 발견하고 아무리 그런 약으로 공격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방법을 발휘하여 완전 멸망을 면함은 물론이요, 어떤 때는 더 강하게까지 되는 것이다.

한겨름 더 나가서 암은 더욱 어려운 문제가 많다. 암은 우리 신체밖에서 침입한 세균이 아니고 우리 신체내에서 어떤 세포가 자기 생존법칙을

위반하여 「돌연변이」를 일으켜 발생된 것이다. 즉 우리몸의 구성분자(構成分子)인 우리몸의 세포이다. 우리몸의 세포의 생존에는 일정하고 엄격한 법칙이 있다.

우리 세포는 이 법칙하에서 일사분란하게 규칙대로 살고 있다. 우리몸에 엄격한 「법치하」의 세포가 돌연변하여야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한 「탕아」와 같이 이 법을 무시하고 암세포가 되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무리 「탕아」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일원임이 틀림없듯이 우리몸에서 생긴 암세포도 우리 몸의 세포인 것은 틀림없다. 「탕아」를 조사해 볼 때 우리 정상국민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적어도 생리적 현상으로는 이상(異常)을 발견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고방식이나 행동은 국가법을 무시하고 타인에게 큰 해를 미쳐 크게는 국가 자체에도 해를 미치는 것과 같이 암세포도 그 한개 한개를 따로 조사해 볼 때 우리 생세포 즉 우리몸에서 없어서는 안될 세포와의 구별이 곤란하다. 만약, 다른점이 확실하다면 그 차이를 이용하여 약이나 다른 방법을 써서 우리 생 세포에는 해를 안 주고 그 암세포에만 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이다. 세계 각 학자들은 이런 점을 연구하고 있다. 암 세포에 듣는 약은 그 수가 허다하다. 이

약은 암세포에도 해를 주나 우리몸에 필요한 생세포에도 같은 해를 주니 그 약을 쓸때는 『암은 고쳤으나 사람은 죽었다』는 결과가 되는 셈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암세포에 해를 주는 약 즉 암에 듣는 약은 250,000종류를 제상(計上)하고 있다. 이 중 비교적 암세포에 더 친화성이 있는 즉 암세포에 더 듣는 것은 20종을 넘지 못함이 사실이다. 그러면 과연 30년후에는 우리 생세포에는 해를 안주고 암세포에만 특히 듣는 약이 발견될까, 나는 역시 불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종류가 동일하고 동일장소에 동시에 발생한 암세포를 개별적으로 연구조사해 보면 동부도에서 난 형제자매가 그 성질이 다르듯이 그들 암세포도 그 성질이 다르고 이 세포는 이 약이 잘 듣는데 다른 세포는 전혀 안 듣는 것이 그 성질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떠한 암세포에라도 큰해를 주고 우리 생세포에는 무해한 약을 발견해야만 될 것이다. 이런 약은 「페니시린」이나 「스트렙토마이신」발견보다 더 어려운은 물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더 잘 듣는 약은 나올 것이다. 현재도 많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완전 해결은 나는 가망없다고 본다.

「페니시린」이나 「스트렙토마이신」은 구균이나 결핵균이 우리 몸에 침

입했을 때 그 균들의 생의 성격과 우리 생세포의 생의 성격이 다른 점을 이용하여 그 균들에만 해를 주고 우리 생세포에 해를 안주는 점을 이용하여 발견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 기대와는 달라서 균에도 차차 듣지 않는 일이 많고 사람에도 큰 해를 주는 일이 왕왕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아닌가. 그러면 암치료의 다른 방법은 예를 들면 홀몬 관계암에서 홀몬 요법이 있고 유효하나 완쾌는 가망이 없고 광선 요법도 있으나 암세포에 잘 듣는 것이 있고 장래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이다. 요사이 면역요법(免疫療法)이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치로 볼 때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암세포는 자기 생세포에서 돌연변이 한 것으로 몸밖에 침입한 세균과는 다르고 또 먼저 말했듯이 각 암세포가 자기 다른 성질을 갖고 있음으로 현재로서는 암을 완치시킬 수 있을가 의문이다. 다음에 남은 것은 외과적요법이다. 어떠한 부위에만 발생한 암을 근본적으로 완전 제거할 때는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만약 완전정복이 가능하다면 더 무서운 결과가 올 것으로 길이 믿고 있다.

〈필자=순천향병원 운영위원장·의박〉